



가장 최첨단의 도시 상하이

99년 상하이에 새로 지어진 빌딩이 무려 20만개에 인구 2,400만 명의 대도시이지만 화장실문화 수준은 평균이하로 선진국 진입을 위해 노력하는 중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

4종의 神器가 세상을 바꾸는 중국

상하이에 갔다.

인구 2,400만의 대도시, 상하이.

상하이는 중국에서 가장 최첨단의 도시이다.

요즘 중국은 4종의 신기(神器)가 세상을 바꾸고 있다. 컴퓨터, 핸드폰, 자동차, 황색분(포르노)이 그것이다. 거리마다 중국인들이 핸드폰을 들고 통화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중국에서 핸드폰이 제일먼저 보급된 곳이 바로 상하이.

핸드폰을 중국인들은 처음에 따꺼따(큰형님)이라고 불렀다. 그들이 핸드폰을 큰 형님이라 부른 것은 홍콩 암흑가의 보스(큰형님)들이 핸드폰을 들고 통화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



이제 상하이는 도시가 아니라 하나의 국가정도의 명치를 가졌다.

상하이는 몇 년 전부터 망치소리가 한창이다. 요즘 중국은 마치 우리나라의 60년대처럼 '잘 살아보세' 하고 노래부르며 전 국민이 새마을 운동을 하던 한국과 비슷하다.

99년 상하이에 새로 지어진 빌딩은 무려 20만개였다.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인 것이다.

지난번에 김정일이 중국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상하이의 포동(浦東)신구를 방문해서 놀랐던 것처럼 상하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옛날의 상하이가 아니다.

상하이는 우리에게 낯익은 도시이다.

일제시대에 우리나라의 독립투사들이 이곳 프랑스 조계에 머무르기도 했고, 협객들이 또한 이곳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한 10년 전쯤 되었을까.

소설가 김장수 선생을 따라서 관훈동의 관훈다방엘 간 적이 있다. 그곳에서 1940년대에 상하이에서 주먹으로 명성을 날리던 상하이 박이라는 분을 뵈는 적이 있다.

이미 70중반의 고령이었지만, 흰 구두에 흰 양복, 흰 중절모를 쓰고 노인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로 허리가 반듯한 그분을 보고 새삼 왕년의 주먹에 대해 놀랐던 적이 있다.

영화 아나키스트가 만들어진 도시, 왕년의 협객들이 활동하던 상하이. 그 상하이에서 협객들의 무대는 지금의 <신세계>라는 곳이다.

◀왕년에 상하이 주먹들이 주 무대로 삼았던 상하이의 신세계 거리.

1. 2만 5천톤급의 호화유람선 올리아나 호. 지금은 퇴역해서 와이탄 포구에 묶여있다.
2. 상하이시의 황포강. 이 강을 중심으로 상해가 발전하였다.
3. 상하이 화평반점 재즈바.
4. 화평반점 화장실

신세계에도 변화와 개혁바람이

전형적인 옛날 중국식 건물들이 늘어선 거리. 이제는 완전히 관광지화 되어 백화점과 대형식당, 보석가게와 쇼핑센터들이 노랑, 빨강의 비닐깃발을 늘어놓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 신세계라는 곳에서 중국의 강패와 협객들이 한 시절을 풍미했다.

그 시절 풀마니들이 신세계에서 놀았다면 협객들의 보스와 외국에서 온 상인들, 자본가들, 고위관리들은 다른 곳에서 놀았다.

와이탄(外灘)의 거리였다.

상하이의 포동 항구 앞의 거리가 바로 그곳이다.

포동 항구는 상하이의 관문이다.

지금도 여기서 배를 타면 3박 4일만에 홍콩에 가 닿을 수가 있다. 그 3박4일 동안 서양인들은 배 위에서 댄스파티를 열고 샴페인을 마셨다.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2만5천톤급 영국 여객선 올리아나호가 홍콩과 상하이를 왕복했었다. 11층 건물이 들어있는 거대한 올리아나 호에는 여러개의 파티장, 나이트클럽, 수영장, 쇼핑센터, 수백개의 객실, 병원, 양복점, 이발소, 미용실, 세탁소등 모든 편의시설을 다 갖추고 있었다.

이제 올리아나호는 퇴역해서 와이탄의 포구에 영원히 정박해 있고, 지금은 그곳이 상하이 시민들의 결혼식장으로 쓰이고 있다.

바로 올리아나호가 정박해있는 와이탄의 거리

3,4층의 우람한 대리석 건물들이 늘어선 금융과 무역의 중심지, 고급식당들이 늘어선 와이탄 거리에 화평반점(和平飯店)이 있다.

화평반점은 중국 최고의 호텔

반점이란 중국음식점이 아니라 호텔.

1929년에 개업한 화평반점. 문을 열 당시 중국 최고의 호텔로 손꼽히던 곳이고, 지금도 역사와 관록이 있는 호텔로 인정받고 있는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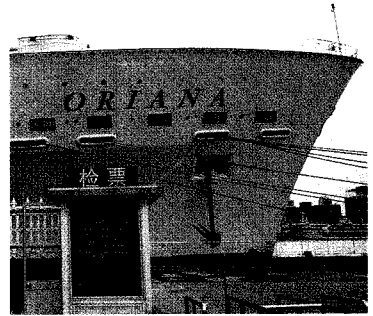
바로 화평호텔 1층에 있는 재즈바.

여기에 당대의 유명인사들이 밤이면 모여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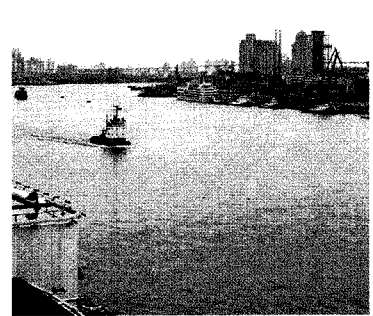
밤10시, 화평반점의 1층의 재즈바로 들어선다.

무대에서는 중국인들이 기타와 피아노, 첼로에 트럼펫과 트럼본으로 올드재즈를 연주하고 있다. 조명은 희미하고 그 아래 자유롭게 흠어져있는 원탁 테이블에서는 세계 각 국에서 모여든

1



2



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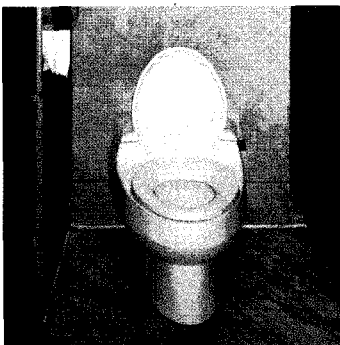


비즈니스맨들이 독일식 비터맥주를 한잔씩 하면서 시가를 입에 물고 재즈를 즐기고 있다. 중국의 재즈는 미국의 뉴올리언즈 재즈와는 달리 기교가 풍부하지 않다. 마치 한물간 유행가 가수처럼 우리도 흔히 아는 〈옛날의 금잔디, 동산에 매기, 앓아〉 하는 그런 흘러간 노래들을 연주한다. 나이가 원숙한 60대 은발의 서양 노인들이 편안한 자세로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아 그 노래를 흘러듣고 있다. 비터 생맥주를 한잔시키고 땅콩을 한 접시 시켰다. 생맥주를 한잔 마시면서 그 옛날 이 바의 모습을 떠올려 본다. 여기에는 영국, 독일, 프랑스 조례에 파견되어 있던 서양관리들과 상인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김 구 선생도 한 번쯤 들렀을 것이고, 모택동을 인터뷰해서 일약 세계적인 유명 언론인으로 떠오른 에드가 스노우도 들렀을 것이고, 에드가 스노우의 부인이자 한국의 독립투사인 김산과 사랑에 빠졌던 기자인 웨일즈도 여기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댄스파티를 즐겼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맥주를 한잔, 두잔 비운다. 중국인 악사들은 이따금 연주가 끝날 때마다 내가 박수를 쳐주자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준다. 서양인들은 한국의 연주가 끝나도 자기들의 대화에 열중해서 곡이 끝나는지

마는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 드디어 밤12시 이곳은 새벽2시까지 영업을 하지만 나는 호텔로 돌아가서 잠을 청해야 할 시간.

화장실문화에 무심한 상하이인들

계산을 하고 일어서니 생맥주를 많이 마셔서인지 그만 오줌보가 당긴다. 7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상하이의 대표적인 사교 바인 화평반점 재즈바의 화장실로 갔다. 그리고 문을 척 열어 제쳐서보니, 늘어서 있는 양변기는 그만 때가 끼고, 화장실 문짝도 낡았다. 질척한 오줌냄새가 비릿하다. 왕년의 명성을 지키려면 화장실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하는데 그만 철밥통 공산정권 50년에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 쓴 모양이다. 중국 전체에서도 화장실에 제일 인색한 곳이 사실은 상하이이다. 그래서 화장실이 없는 가정집이 많고 그들은 밤새 마몽이라는 통에 오줌, 똥을 모았다가 아침이면 통차에 버리는 곳이 바로 상하이였다. 화장실문화에 무심한 상하이인들 그래서인지 왕년의 초일류호텔인 이곳도 화장실은 그만 평균수준 이하로 떨어져 버렸다. 이런 면에서 중국은 아직 선진국이 못된다.



홍 하 상

- MBC 다큐멘터리 작가, 한국화장실문화협의회 전문위원
- MBC다큐멘터리 270여편, MBC 방송대상 작가상 수상
- 저서: '일본뒤틀림의 역보기', '프랑스 뒤틀림의 이야기', '지구촌 뒤틀림의 음식 한 그릇'
- 소설: '외인부대원 포레임'